

만년약국이 전하는 이야기

대동강구역에는 만년약국이 있다. 1년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약국으로 되었다.

뜻밖에도 조성된 방역위기와 관련하여 전국에 최대방역약국 체계가 선포되었던 그날로부터 며칠후인 지난해 5월 15일의 깊은 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주민들에 대한 약품 공급 및 판매정형을 로해하시려 이 곳 약국을 찾아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려는 영광을 지니었던 만년약국의 판매원 김미경은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현저는 너무도 민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동안 어려웠었습니다. 끝까지 어린 곳이었나. 유력자들과 접촉할 수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나. 이런 곳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실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뜻밖을 력사의 그날 어쩔바를 몰라하는 판매원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방역약국 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 사체로 전환하였는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세심히 물으셨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방역대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다.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갈때 대하여 거듭 강조 하시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그날의 간곡한 당부, 따뜻한 웃음이 영원한 메아리로 되어 울리는 약국이다.

나라의 방역상황을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회의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

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엄숙히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질 송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한 멸사복무의 의지로 헤쳐가신 격난의 낮과 밤들이 눈물결겨 어려울 이 곳을 찾는 사람마다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최대방역약국이라는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

신 속에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수많은 대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앓고있는 인민들 생각으로 순간도 쉬지 못하시며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까지 어렵고 힘든 세태들에 보내주신 인민의 어머니의 열렬한 위민헌신의 러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었는가.

바로 그래서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시련속에서 사랑하는 인민을 구원해주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운명의 수호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 멸사복무의 송고한 세계를 가슴속깊게 되새겨보게 하는 사연깊은 약국이어서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을 누구나 묻는다.

1년전 그밤에 우리 원수님 서계시던 자리가 어디인가. 그러면 판매원들은 초추치는 격정속에 대답하곤 한다.

《바로 여기가 우리 원수님께서 서계시던 자리입니다.》

분사기자 김 영 범



합께 올곧은데 사는 화목한 데가정

친혈육보나 더 따스한 정으로

공화국에는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으로 세 세대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랑심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이 수 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맡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교육자들도 있다.

* 지난해 3월 학령아동조사를 위하여 당남지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박은주 형제산구역 약소학교 교원의 눈가에

《태어났을 때부터 걸지 못하여 유치원도 못다녔다는 소년, 학교에 가고 싶으나 혼자 걸고 개를 끄덕이던 지이니, 그의 얼굴에 비친 그늘을 가서

지지 못하면 교육자로 일생 마음이 개운할것이지 않았다.》

장애자소녀를 맡아안다는 것은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땅의 교육자라면 응당 한명의 아이라도 조국의 미래로 더 활짝 피어나게 해야 하고 그걸에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

소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면 그는 앉은걸음으로 문가에 나온 연미에게 등을 돌려대며 말하였다.

《어서 업혀라. 오늘부터 나랑 함께 학교에 다니자.》

한 소녀의 꿈을 꽃피워줄 결심을 가다듬으며 박은주 교원은 힘차게 걸음을 내걸

었다.

연미를 등에 업고 학교로 오갈 때마다 그는 노래도 배워주고 간단한 수학문제도 물어보았다. 등교길은 연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업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연미도 아버지원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조국의 미래이다. 그가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하자.)

이때부터 그의 일과는 더 바쁘게 흘러갔다. 손에는 늘 의학서적들이 묻어다녔다. 그 뜨거운 정성으로 연미의 다리에서는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던 연미가 부축을 받으며 몇 발자국을 내걸었다. 그리고 죽기계양실에도 참가하여 국가를 불렀다.

몰라보게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학부형들은 박은주교원의 지성이 그대로 명약이 되었다고, 친혈육의 정인들 이보다 더하겠는가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랑선일 사리원시 도림기술고급중학교 초급반 교원도 제자들에게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들과의 한사람이다.

랑선일교원이 새로 담임한 학교에 소학교시기부터 불치의 병에 걸려 제발로 걸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은 몇해전 4월이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 남학생인 대홍이를 위해 의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고있는 랑선일교원이다.

대홍이가 때로 낮은 성격을 받을 때면 그는 자기의 지성과 능력의 부족처럼 느껴져 죄스러웠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동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뿌려움이 비길 때면 자식을 위한 구실을 다 못하는 아버지같아 자책감에 모래기운 하였다.

랑선일교원은 병원의료인들과의 방조밑에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기름아, 이 백타이는 항아리동안의 붉은베라이를 물려받은것이란다. 붉은베라와 더불어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려라.》

그런던 더 바랄것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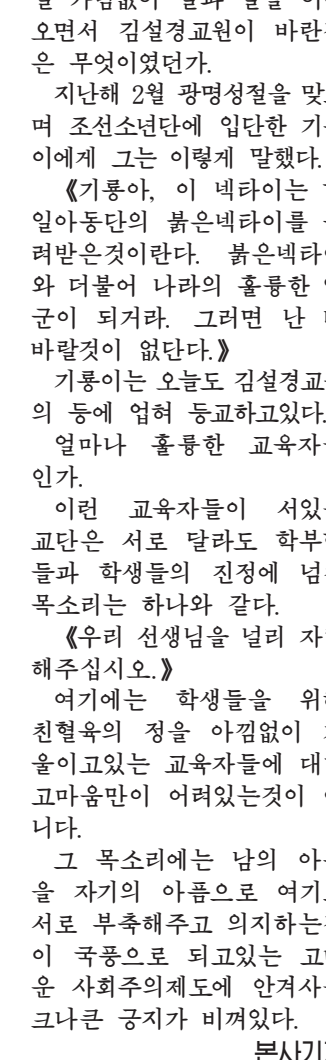
기름이는 오늘도 김설경교원의 등에 업혀 등교하고있다.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들이 서있는 교단은 서로 달라도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하나와 같다.

《우리 선생님을 널리 자랑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 교육자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에의 남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으로 여기고 서로 부추해주고 의지하는 것이 국공으로 되고있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안겨사는 크나큰 긍지가 비껴있다.

분사기자 김 영 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혁의 세 력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모든 시대어들은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상이 담기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가는 지 향의 의지가 비껴있다.

나는 얼마전 참관자로 량포은실농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화국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밝은 미래를 심장으로 체합하고 느끼게 되었다.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왔다. 정말 장관이었다.

우리 나라 농촌진흥의 본보기, 농촌문명의 패일이 여기에 펼쳐져있다.

나의 옆에서도 여러문명의 사람들이 연방 감탄을 하며 말을 주고 받고있었다.

《야! 우리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붉은 바다. 여기 량포는 은백색의 바다야.》

《글쎄, 우리 중평은실농장도 모두들 와보고 온실바다라고 감탄을 하지만 량포는 더 큰 온실바다야.》

사람들이 떠들썩한다.

중평치녀가 조용히 말을 했다.

《정말 우리 나라는 바다가 많기도 하구나. 사랑의 바다가 많은 나라!》

극악한 전쟁도발책동과 끈질긴 제재봉쇄책동이 계속되었고 약성비루스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했다.

그러나 우리는 약성비루스와의 싸움에서 이겼을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량포도에 이렇듯 력사에 길이 남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할 줄 모르는 인민사랑이 원천이 되어 이 땅에 펼쳐진 사랑의 바다들은 그이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인민의 행복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갈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음속홍분을 누를길 없어 시를 써나갔다.

... ..

인민 위한 마음 얼마나 근진하셨으면

몸소 착공의 첫삽 뜨시었으랴

동해바다는

수수천만년 지각의 변화 속에 생겼지만

내 조국의 자랑 량포의 온실바다는

원수님 첫삽에 실려 그날에 벌써 태어났으랴

《바다》가 많은 나라

현포은실농장의 거대하고 현대적인 모습은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그래서 그곳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관도 오고 경험도 배우러 왔다.

내가 량포은실농장에 갔을 때도 역시 그러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르셨던 전망대이다.

전망에서 량포은실농장을 부감하면 꼭 배를 타고 바다를 항행하는 기분이다.

나는 온실농장을 돌아보느라 시간이 쪼 지나서야 전망대에 올랐다.

강원도에서 온 처녀인 듯싶는데 다른 청년이 그에게 뒤질세라 말을 받는 것이었다.

《지난해에 우리 황남에 펼쳐졌던 농기계바다도 정말 장관이었어.》

보아하니 그들은 한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니나다를까 자기네 교장 사과바다자랑을 하던 처녀가 다른 처녀에게 말을 건넌다.

《중평, 너도 한번 말해보려. 중평은실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입이 열여 붙었어?》

생각도 깊어진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중평의 온실바다, 황남의 농기계바다, 오늘은 또 여기에 량포의 온실바다...

아마 다른 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도 자기 고장에 생긴 또다른 《바다》 자랑을 하리라.

바다란 크고 넓음을 뜻한다. 바다와도 같은 이 세계 굴지의 대규모온실농장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수 있었는가. 그것도 단 230여일 동안에.

그 230여일도 평범한 나날이 아니었다. 적대세력들의

세계는 놀랐다. 적대세력들은 전를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약성비루스 사람들 죽어가고 흉수피해로 도시와 산업시설이 물에 잠겨 아우성칠 때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희한한 거리를 일떠세우며 량포의 온실바다를 펼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기적과 변혁이 려이 일어 나는 내 나라에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바다들과 시대어들이 생겨날 것인가.

1990년대초에 세계보건기구의 주관하에 70여개 나라의 보건전문가들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도 알려진 의사담당구역제의 형성과 방법 등을 따라 배워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배워간다고 해서 쉽게 자기 나라에 도입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이 아니고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에 팔고류 의료기관들과 의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만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의 가정세대들을 담당하여 돌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의료봉

사제도로서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의학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공화국에서 의사담당구역제는 이미 해방직후인 1940년대말에 시작되어 1961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성을 힘있게 파시해온 의사담당구역제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그 우열성이 더욱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자본주의 나라에도 개인 건강관리계약제라는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가 여러 세대의 가정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을 돌봐주면서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돈을 받는 돈벌이계약제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의사와 몇몇동안의 상담을 하고도 해도 돈이 요 구된다. 그러므로 하여 일반사람들은 왕진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나라들에서는 실사 무대 한 재부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참으로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단순히 보건제도의 우월성이기 전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참모습이다.

사랑은 황금으로 살수도, 계산할수도 없다.

돈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고 보는 자본주의가 그 역대의 재부를 다 쏟아도 감히 엄두도, 흉내도 낼수 없는 이런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실시하는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며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인민이다.

어느해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어 그가 누구든 일생동안 담당의사를 가까이 두고 건강보호를 받고있는 이 땅의 골짜기를 현실을 목격하고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자본주의 나라에도 개인 건강관리계약제라는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가 여러 세대의 가정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을 돌봐주면서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돈을 받는 돈벌이계약제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의사와 몇몇동안의 상담을 하고도 해도 돈이 요 구된다. 그러므로 하여 일반사람들은 왕진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나라들에서는 실사 무대 한 재부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참으로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단순히 보건제도의 우월성이기 전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참모습이다.

사랑은 황금으로 살수도, 계산할수도 없다.

돈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고 보는 자본주의가 그 역대의 재부를 다 쏟아도 감히 엄두도, 흉내도 낼수 없는 이런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실시하는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며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인민이다.



비인간적인 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썩어빠진 사회

남조선에서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보건부분의 실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3월 남조선 대구의 한 건물에서 17살 난 처녀가 4층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구급차가 생명이 위급한 처녀를 싣고 어느한 종합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병원에서는 전문 의사가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환자에 대한 구급치료를 매를차례 거절해나갔다.

하는수없이 또 다른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자가 많아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구급차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2시간나마 헤매던 끝에 처녀는 구급차안에서 숨을 거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생사고로에 처한 처녀를 싣고 여러 병원을 떠돌던 한 사람은 《대구시대의 거의 모든 병원에 전화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였다.

사회제도를 잘못 만나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숨을 거둔 사람이 어찌 그 하나뿐이라.

올해 1월 서울에서 가슴아픔을 호소하는 68살 난 구급환자를 1시간이 훨씬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다.

알려지지 의하면 지난해에만도 남조선의 병원에서 부당한 구

대신 오히려 오만하게 놀아대며 만사망의 격분을 자아냈다.

의사의 말을 쓴 그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린 생명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한갓 저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의 리익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실사 제 살벌이든 서슴없이 죽이는 남조선사회에서 사랑과 정이 아니라 학대와 고통속에 피기도 전에 쓰러진다는 말들이 그 얼마나 잔인한지 모른다.

구수소의 특권층이 병치료를 한답시고 거액의 돈을 랑진하고있을 때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의료봉사를 환자들을 받아들이고있는 실지 수술은 다른 전공부분의 의사나 애당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집도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있다.

저어 어떤 병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것으로 하여 《살인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2살짜리 어린애의 복강수술을 하다가 어린애의 배안에서 수술도구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킨적이 있었다.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의료사고를 내고도 병원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수술실 환자가 의사를 못보게 하라

무명수술 4시간 20분 만에 완수

